

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

강진균
(디자인팀)

1 개요

1.1 목표

- 소비자 요구 및 시대의 변화와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이며, 아름다운 공동주택을 건설한다.
- 도시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, 지역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고품격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.
-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체와 지붕 재료의 색채 디자인 전반에 걸쳐 유의해야 할 근본 원칙과 기준, 세부적 고려사항을 제시한다.

1.2 적용 대상

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 및 3층 이상의 다가구 주택 건축물 등이다.

2 기본 방향

2.1 현황 및 문제점

- 녹색계열, 붉은색 계열 등의 현란한 원색을 사용한 건물들이 산재되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해친다.

2.2 개선 방향

- 원색류의 고채도의 색채를 지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흰색, 베이지색 계통의 색상과 나무, 흙, 돌 등 자연색을 중심으로 하는 저채도 색채이미지를 추구한다.
- 벽체나 지붕 등의 색채를 같은 색상으로 하여 주위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다.

3 일반 가이드라인

3.1 디자인 가이드라인

3.1.1 건물 입면 재질과 색채

- 좋은 디자인으로 가려면, 무엇보다 ‘유혹의 억제’가 중요하다. 자기 식대로 하고 싶은 충동을 자제하는 일이 필요하다.
- 색깔을 최소화해야 한다. 색깔은 거의 무조건 한 두 가지로 끝내야 한다. 특히 녹색, 붉은색, 짙은 하늘색만은 삼가야 한다.
-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되, 재료 자체의 색을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색채 계획은 지양한다.
- 주변 자연환경에 조화로운 색채로는 벽체 및 지붕 모두 흰색, 은회색 계열을 권장한다.
- 강조색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나무, 흙, 돌 등 자연색을 중심으로 하는 저채도 색채이미지를 추구한다.
- 내구성 있고 관리, 보수,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.

3.1.2 옹벽 등 제한

- 옹벽 발생을 최소화하고 입면 녹화나 자연석 사용을 권장한다.
-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녹색을 지양하고, 흰색 또는 회색의 울타리 사용을 권장한다.

3.1.3 기타사항

- 기타사항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855호의 「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」을 참고한다.

3.2 좋은 디자인 사례



서울 수색동 아파트



동탄신도시 아파트



부산 해운대구 아파트



서울지역 아파트



김포 한강 신도시 아파트



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

- 대도시의 아파트 대부분 흰색, 베이지색 등을 사용하여 깨끗한 이미지를 줌.
- 흰색과 베이지색 등은 개별로 튀지 않아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좋은 색채임.